

## 대안적 지역발전론으로서 지역차이발전론

이재하\*

### Regional Differential Development as an Alternative Regional Development Theory

Lee Jaeha\*

**요약 :** 세계화 시대에도 대부분의 세계인들은 각 지역이나 지방이 정체성을 지니고 공생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의 도시 또는 산업지역 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신산업지구, 산업클러스터, 지역혁신체제, 세계도시지역과 같은 신지역주의 발전론은 세계의 몇몇 선진 산업지역에서 유도된 것으로 보편적 지역발전론이 될 수 없다. 본 연구는 대안적 지역발전론으로서 지역차이발전론의 개발을 시도했다. 지역차이발전론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지역 간의 차이 또는 상이한 산업발전이 세계인의 공생과 지역 정체성과 같은 두 가지 핵심적인 발전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중시한다. 지역차이발전론은 지역의 지리적 요소 중에서 차이우위를 지닌 요소를 기반으로 이에 적합한 지역의 차별적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지리적 요소 중 지역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위치, 자연환경(지형, 토양, 기후 등), 천연자원, 인구, 교통, 문화, 경관의 차이우위를 중요시 한다. 그리고 지역차이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관련 기관, 지역주민과 같은 네 주체가 발전목표를 공유하고 협력과 갈등 관계 속에서 상보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이론은 많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이론의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주요어 :** 공생, 지역 정체성, 지역차이발전, 지리적 요소, 차이우위, 주체의 상보적 역할

**Abstract :** Most of global citizens in the globalization era want to live peacefully in the symbiotic relationship among each region or locality with its identity. From this perspective, the new regionalist models of development such as new industrial districts, industrial clusters,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nd global city-regions isn't helpful to most of regions because they were developed to increase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industrial region from a few advanced industrial areas. This study attempts to develop 'regional differential development' as an alternative regional development theory. This theory puts emphasis on the truth that the difference or differential industry between regions in the real world connotes two essential values of development like the symbiosis of global citizens and the regional identity. Regional differential development seeks the development of regional differential industry on the basis of geographical elements with differential advantage, and hence it reviews significantly geographical elements including location, natural environment(landform, soil, climate, etc.), natural resources, population, transportation, culture, and landscape which appear substantially differently among regions. And to realize regional differential development successfully, it is crucial that actors(government, company,

이 논문은 2008학년도 경북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eeja@knu.ac.kr

related institutions, and regional residents) actively participate and play each complementary role in the relationship of cooperation and conflict. Further study needs to secure the universal validity of this theory through many empirical studies.

**Key Words** : symbiosis, regional identity, regional differential development, geographical elements, differential advantage, complementary role of actors

## 1. 서론

산업화를 일찍이 경험한 구미제국은 19세기에 이르러 지역격차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산업이 발달한 도시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격차는 20세기에 들어와 더욱 심화된다. 서구사회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 발전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산업화에서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지역주의(regionalism)운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영향으로 전후 프랑스에서는 산업화에서 소외된 저발전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규범적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성장거점이론이 등장하였으며, 1960년대부터 세계의 주요 선진국은 물론 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도 성장거점 방식 지역발전정책이 시행된 바 있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는 아시아지역의 낙후된 농촌지역의 산업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소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농도개발 전략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포디즘 생산양식의 서구경제는 1973년과 1979년의 1,2차 오일쇼크와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부상 및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만성적인 국가재정 적자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한 탈출구로 미국과 영국 등은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를 포기하고 지역정책에서도 정치적·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한편,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며 기업 활동이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세계경제 성장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세계경제의 통합화 즉, 세계화를 주도한다. 세계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부터

세계의 경제활동이 전 지구적으로 통합되며 상호의존성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공간의 경쟁도 국가 간 못지않게 전 세계의 도시나 지역 간에도 심화되는 체제로 변모하게 된다. 이에 도시나 지역에서는 글로벌 경제공간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치적 자율성(지역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데 관심이 집중된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가 등장하게 되며, 아울러 다양한 신지역주의 발전모델(new regionalist model of development)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신지역주의 지역발전론으로는 신산업지구론, 산업클러스터론, 지역혁신체제론, 세계도시지역론 등을 들 수 있으며(Lee, 2003a), 세계 각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경쟁적으로 국가발전과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지역발전론들은 현실세계에서 지역발전문제를 설명하고 해법을 제시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등장한 성장거점과 농도개발론은 각각 대규모 공업단지화 소규모 농도산업(농업+경공업)지구를 개발하면 모든 저발전지역이 낙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지역 간의 지리적 차이점 때문에 공업 입지에 불리한 지역은 성장거점이나 농도산업 도입이 불가능하고, 가능한 경우라도 막대한 투자재원 등이 마련되어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성장거점의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낙후된 주변지역의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성장거점 도시와 주변 농촌지역 간의 발전 격차는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었다고 비판받았다.

신지역주의 지역발전론들은 산업(주로 제조업)집적지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면 모든 산업지역이 세계적인 첨단산업지역으로 발전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론들은 세계경제체제에서 중심부(core) 지위에 있는 소수 국가들의 일부 산업지역들의 성공적 모범사례에서 유도된 것으로서 산업기술과 민주화 수준이 낮은 도시나 산업지역에는 도입 자체가 부적합할 뿐 아니라 적용하여도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 이론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1%도 안 되는 소수 산업지역의 성공사례에 대한 것으로 특정지역의 경험적 발전론에 지나지 않는다. 요컨대 기존의 지역발전론은 세계의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지리적 다양성 또는 차이점으로 인해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설명되고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시대에는 인구와 경제활동이 실질적으로 집중돼 있고 영위되고 있는 일정한 영역(territory)으로서 지역(지방) 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경쟁도 심화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지역의 정체성 또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더욱 중요시 된다. 이러한 세계적 지방화(glocalization)시대에 세계의 모든 지역이 공존하며 공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론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지역발전론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계화된 세계경제속에서 각 지역이 나름의 산업공간으로서 공생하며 지역정체성을 확보해 갈 수 있는 길은 각 지역의 지리적 차이 또는 특성을 기반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대안적 지역발전론으로서 ‘지역차이발전론’의 개발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2장에서는 대안적 지역발전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발전론의 한계점을 지역주의와 신지역주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3장에서는 지역차이발전론의 이론적 기초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경험적 사실을 검토하고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차이발전론의 논거로 제주도의 지역발전의 경험적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주도의 사례를 주로 예시하려는 것은 지역차이발전론의 논거가 제주도 지역발전의 경험적 사실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역개발정책이 시행되기 전 1970년 무렵에는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이었다. 1970년 산업별 취업자 수의 구성비는 1차 산업(농림수산업) 73.1%, 2차 산업(광공업)

2.7%, 3차 산업(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23.2% 이었고, 당시 제주 농업에서 감귤농업의 비중(감귤 농가수는 전 농가수 55,558호의 3.1%, 재배면적은 전 경지면적 35,810ha의 13.5%, 연 생산량 5만 톤)은 매우 낮았으며, 연 관광객은 24만5천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1970년대부터 제주도는 고유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국제적 관광지로의 발전정책을 추진함과 더불어 관광소득 작물로서 자연환경에 부합하는 감귤농업 육성정책도 추진했다. 그 결과 2010년 산업별 취업자수는 1차 산업 19.6%, 2차 산업 3.4%, 3차 산업 77.0%로 관광업 중심의 서비스 산업지역으로 전환되었고, 농업에서 감귤의 비중(감귤 농가수는 전 농가수 37,919호의 81.5%, 재배면적은 전 경지면적 59,255ha의 35.0%, 연 생산량 57만 톤)도 탁월해져 특화지역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연 관광객은 30배가 넘는 757만 8천여 명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최근 제주도는 중국관광객의 급증으로 2011년 12월 16일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런 추세로 가면 2012년 1000만명 관광객(내국인 850만명, 외국인 15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오늘날 제주도는 지역의 지리적 차이점을 기반으로 국제적 관광휴양지 및 감귤농업특화지역으로 지역차이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 2. 지역주의 및 신지역주의 지역발전론의 비판

### 1) 지역주의 지역발전론의 비판

전통적인 지역주의 지역발전론으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성장거점이론(growth pole or growth center)이다. 이 이론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장소 또는 도시에 공업부문의 발전추진적 기업(propulsive unit)이나 팽창산업(expanding industries)을 유치·입지시키면 그 성장 효과가 배후지역으로 흘러넘쳐 주변지역의 경제도 함께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이다(Perroux,

1955; Boudeville, 1966; Darwent, 1969).

이 이론은 60년대에 프랑스를 비롯하여 이후 한국, 일본 등의 많은 국가에서 국가산업정책과 지역발전정책의 전략적 개발방식으로 채택되었으나, 성장거점(산업도시)의 배후지역(농촌)에 대한 파급효과가 도시의 통근권 내에만 미약하게 나타날 뿐 산업도시와 그 주변지역 간의 발전격차를 오히려 확대시켰다고 비판받는다(Moseley, 1973; Lee and Park, 1984; Gore, 1984). 한편 인도의 학자들은 성장거점을 지리학의 중심지 및 공간확산 이론과 통합하여 성장집점(growth foci)이론을 개념화하고, 성장집점의 계층체계에 따른 2000년 인도의 지역발전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Misra *et al.*, 1974; Lee, 1981).

성장거점이론에 대한 대안으로서 Friedmann과 Douglass는 농도개발론(agropolitan development)을 주장한다(Friedmann and Douglass, 1975; 1978). 농도개발론은 성장거점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도시와 주변 농촌지역을 통합한 농도지구(agropolitan district)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가능한 한 지역의 내부자원으로 농업과 공업(경공업)을 병행 발전시키고 주민의 기본수요 또는 욕구(basic needs)도 충족되도록 하여 도농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농도개발론은 아시아에서 적합한 지역계획 전략으로 만들어진 탓인지 한국과 일본에서 1980년대에 기본수요접근법(basic needs approach)의 기본개념을 접목하여 각각 지역생활권과 정주권 개발 개념으로 변형되어 국토개발계획에 적용된 바 있다. 그러나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우리의 생활공간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과 노동력(인구)은 오히려 대도시로 집중되고 있는데 반해,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은 더욱더 폐쇄해지고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이 개발 개념은 듣기 좋은 수사적인 발전론이 되고 말았다.

## 2) 신지역주의 지역발전론의 비판

신지역주의가 대두될 무렵 1984년에 Piore와 Sabel은 신산업지구론을 제기한다. 그들은 19세기 말에

Marshall이 사용한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와 다른 의미로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경제공간과 지역발전에서의 중요성을 주장한다(Piore and Sabel, 1984; Park, 1994). Piore와 Sabel은 대량생산의 위기로 북미, 유럽, 일본 등에서 유연적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가 출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탈리아 북부의 Emilia-Romagna 지역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것을 토대로, 전문화된 중소기업이 네트워크를 이루며 경쟁력 있는 산업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포스트-포디즘적인 유연적 전문화(다목적용 기계, 숙련노동, 주문제품) 생산방식을 채택하고, 기업가와 노동자 간 협력 뿐 아니라 기업 간에도 경쟁보다 협동관계가 성립돼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Scott은 조절이론적 시각에서 포디즘적인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유연적 생산체제로 전환되면서 전문화된 기업들(산업)은 거래비용 감소와 같은 외부경제 효과가 발생하기 용이한 곳에 입지적으로 집적함으로써 신산업공간(new industrial space)이 등장하였다고 주장하였다(Scott, 1988). 하지만 선진경제에서조차도 대부분의 제조공장은 포드의 조립라인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지 않으며, 포드 방식은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등의 일부 내구소비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은 여전히 대량소비 시장에 의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며 현실세계에서 경험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비판받고 있다(Penn, 2003; Lee, 1993).

산업클러스터론은 미국의 경영학자 Porter에 의해 제기된다(Porter, 1990; 2000). 그는 한국을 비롯한 10개 산업선진국의 주요한 산업집적지역에서 나타나는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는 특정한 위치(locations) 또는 장소에서 상호연관 기업, 공급자, 관련 산업 및 기관들로서 이루어진 클러스터(cluster) 즉, 산업 군집(groups) 또는 지리적 집적(a geographic concentration)에서 특정 산업의 경쟁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산업클러스터에서는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 및 지원산업, 기업의 전략과 구조 및 경쟁관계 등의 네 가지 요인 간의 상호작용(diamond model)으로 기업의 생산성 증대, 혁신 유발, 신규 사업투자 등의 산업경쟁력이 발생하며, 이 요인들

각각에 대해 지원하는 정부와 산업발달에 관계된 우연적 기회(chance)가 이차적인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Porter가 초기 이론에서 수요조건에서 국내시장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과 국내 기업들 간의 경쟁관계가 제품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 주장은 세계시장에서 타국의 기업과 경쟁하며 성장한 한국 등에서 출현한 세계적 수출 기업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잘 설명해주지 못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이론적 약점은 국내외 기업들의 국제적 또는 다국적 활동을 포함하여 그 경쟁력을 설명하는 'double diamond model'이 제안되고 수용됨으로서 상당히 보완되었다(Rugman and D'cruz, 1993). 어쨌든 산업클러스터는 미국, 핀란드, 한국, 일본 등 OECD 국가들은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산업 경쟁력 발전전략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산업선진국의 주요한 산업집적지구나 지역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된 원인 분석에 유효한 논리적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그렇지 못한 산업지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클러스터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는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s)는 지역 내 기업들과 정부,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훈련기관 등의 제 주체(actors) 간의 상호 협력과 학습을 통해 암묵적 지식의 상품화를 비롯한 다양한 혁신이 창출돼 지역경쟁력이 높아진다는 혁신 주도형 발전론으로서, 이것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주체 간 네트워크 체제, 학습지역, 혁신환경 등이 제도적으로 형성돼 착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제도와 문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Cooke, 1992;2001;2003; Morgan, 1997; Cook and Morgan, 1998; Crevoisier and Maillat, 1991; Park, 2002).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지식의 상품화가 가장 요구되는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역혁신 주체 중에서 대학이 주도하는 대학-산업(기업)-정부 간 순환·중첩적 상호작용에 의한 창업과 신상품 개발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트리플 헬릭스(Triple Helix) 혁신모델이라 부르고 차별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Etzkowitz and Leydesdorff, 1997; Leydesdorff and Martin, 2006).

하지만 규범적이고 기술적인(descriptive)발전론인 지역혁신체제는 이론적인 문제점 뿐 아니라 경험적 타당성의 부족으로 세계화시대의 지식기반 지역발전론으로서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지역혁신체제론은 학자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정의되고 접근됨에 따라 개념적 틀에서의 통일성이 결여돼 있고, 지역의 규모 또는 범위가 불명확하며, 지역혁신체제의 출현과 유지를 위한 제도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있는 미완성이론이라고 비판받고 있다(Doloreux and Parto, 2005). 또한 현실세계에서는 Silicon Valley, Emilia-Romagna, Baden-Wurttemberg 등 3개 지역에서만 진정한 지역혁신체제가 확인되거나(Cooke and Morgan, 1998), 그것의 성공사례는 경제 성장과 혁신을 경험한 산업핵심지역과 첨단산업 집적지역에서나 목격될 수 있다는 것이다(Lee, 2003b).

1999년부터 이론화가 시도되고 있는 세계도시지역(global city-regions)론은 선진세계에서 인구나 산업밀집지역인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많은 거대도시(metropolis)들이 세계화의 위협과 기회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현한 지리적 및 제도적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Scott, 1999; Scott *et al.*, 2001; Simmonds and Hack, 2000). 거대도시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리적으로는 각종 생산시설과 인프라가 입지해 있는 그 배후지역을 하나의 정치·경제적 지역으로 합병에 의한 통합을 하거나 인접한 거대도시권(metropolitan area)과 연합적 또는 협력적 통합을 하고, 경제적으로는 국제적 기업업무 및 관련 서비스업의 유치·육성과 함께 첨단기술 산업의 클러스터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저렴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이주문호를 개방하고, 정치적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나 자치권을 강화하면서 거버넌스(governance) 방식으로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단순한 거대도시지역(metropolitan city-region)이 아니라 세계경제 속에서 경쟁력 있는 준국가적(subnational)인 새로운 형태

의 거대도시지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며, 이를 세계 도시지역으로 개념화하였다(Scott *et al.*, 2001; Lee, 2003a).

세계도시지역이 세계화 경제에서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세계경제에 새로운 중심축으로 등장하자,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케나다, 일본 등에서는 대 도시를 중심으로 광역도시권(city-regions) 또는 초광역권(super-regions)의 형성과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이에 영향으로 받아 광역시와 인근의 도 광역자치단체를 하나로 묶는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도시지역 발전론은 글로벌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선진국의 거대도시지역들이 분권화된 정치제도를 바탕으로 그 경쟁력을 더욱 높이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앙집권적 국가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Lee, 2003a).

### 3. 대안으로서 지역차이발전론 모색

세계가 하나의 세계경제(a world economy)로 통합된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 간, 지역 간, 도시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장소들 간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치열한 경쟁현상에 대해 Haider는 장소전쟁(place wars)이라고까지 표현하였다(Haider, 1992). 이와 같은 세계의 변화된 공간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등장한 다양한 신지역주의 지역발전론들은 세계 속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 지역들의 산업 경쟁력과 지속적인 발전의 동인을 설명해 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는 신지역주의 지역발전론들은 산업, 자본, 인적자원이 집중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세계화 시대에도 거의 대부분의 세계인들이 원하는 세상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지방이 자연적 및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며 공존(coexistence)하는 즉, 세계의 각 지역이 공생관계(symbiotic relationship)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계이다. 이러한 점

에서 볼 때, 산업지역 간 경쟁에서 타 지역에 비해 우위에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신지역주의 발전론들은 세계의 대부분의 지역이나 지방에 적용할 수 없는 비보편적인 지역발전론인 것이다. 세계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상호의존하며 평화롭게 공생하려면 세계인의 실질적 삶터인 각 지방이나 지역이 나름의 정체성(identity)을 형성하며 유지하는 발전을 구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역발전 패러다임도 지역의 경쟁력 보다는 공생과 지역정체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의 모든 지역은 위치, 자연,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정치, 경관 등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특성 즉,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역정체성은 고정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지역민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며 변화하기 마련이다(Lee, 2008). 지역발전은 지역과 정부가 지역민의 생활환경과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주된 관심사는 주민생활의 근본인 산업 활동을 성장·발전시키는데 있다. 세계의 모든 지역이 지구 속에서 공존·공생하며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역발전론은 소수지역만이 승자가 되는 지역경쟁력 강화 발전론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승자가 될 수 있는 지역 간 산업의 차이 또는 정체성을 추구하는 발전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지역차이발전론(regional differential development)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지역 간의 차이 또는 상이한 산업발전 양상이 세계인의 공생과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발전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중시하고, 특정 산업이 잘 발달된 지역을 통해 이론의 개념적 틀과 구성 내용을 개발한다. 지역차이발전론은,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산업이 잘 발달돼 있는 것은 각 지역이 지리적 요소(geographical elements) 중 차이우위(differential advantage) 또는 차별적 이점을 지닌 요소를 기반으로 이에 적합한 지역산업과 생산품의 차이(차별적) 발전을 최대로 추구한 결과로 이해하고, 그러한 지역차이발전을 의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발

전문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방식은 지역산업에 종사하는 지역민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보다 효과적일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역산업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높여 줌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해 가는 길이 된다고 인식한다.

지역차이발전론은 지리적 요소의 차이우위에 따른 지역차이발전의 사례와 이러한 발전에 참여한 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경험적 사실을 중시한다. 지역의 지리적 요소 중에서 지역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위치, 자연환경(지형, 토양, 기후 등), 천연자원, 인구, 교통, 문화, 경관 등과 같은 요소이다. 먼저, 이러한 지리적 요소의 각각의 차이우위가 지역의 차별적인 산업의 입지와 발달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사실을 제주도를 포함한 국내외의 수많은 지역의 사례로써 검토해보기로 한다. 제주도는 위치, 자연환경, 경관 등의 세 요소에서 지적된다. 다음으로는 참여 주체들의 역할에 대해 제주도의 경험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논의해 보기로 한다. 지역차이발전에서 지리적 요소의 차이우위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지역의 지리적 요소의 차이우위에 적합하거나 유리한 산업이 발굴되거나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차별적 산업지역으로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들이 협력과 견제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제주도의 경우는 참여한 네 주체 즉, 정부, 기업, 관련 기관, 그리고 지역주민이 제주도의 지역발전 목표를 공유하고, 각 주체가 협력과 갈등 관계 속에서 상보적 역할(complementary role)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1) 지리적 요소의 차이우위와 지역차이발전

가. 위치: 위치는 절대적 위치(absolute location)와 상대적 또는 관계적 위치(relative location)로 나뉘볼 수 있다. 지표상의 경위도 좌표로 표현되는 절대적 위치의 차이는 지역의 기후 조건의 차이와 밀접히 관련돼 특히 농업(농작물)의 상이한 입지와 지리적 분포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상대적 위치의 차

이는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과 교류의 유·불리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농업은 물론이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주요 발달지역 분포에서 잘 나타나듯이 모든 산업 활동의 입지와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례는 제주도를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국토의 최남단인 위도 N 33°11'27"~33°33'50"에 있는 섬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화한 아열대성 기후를 나타낸다. 이러한 절대적 위치의 차별적 이점에 따른 지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제주도는 한국 제일의 감귤농업지역이면서 세계적 관광휴양지로 발전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말라카 해협의 길목에 위치한 관계적 위치가 오늘날 세계적인 중계가공무역항 도시로의 발전에 결정적 입지조건이 되었다. 작은 어촌에 지나지 않았던 싱가포르는 1819년 영국인이 재배하면서 중국과 인도·유럽과의 중계무역에 편리한 위치적 이점을 기반으로 무역항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1965년에 독립한 리관유(李光耀)정부가 위치적 이점을 더욱 활용하여 외국의 가공, 물류, 금융 기업 등의 유치에도 적극 노력한 결과 중계가공무역의 글로벌 허브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서해안지역은 중국과의 교역에 가장 유리한 관계적 위치의 차이우위 때문에 한국의 또 하나의 중화화 및 수출물류산업 벨트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자연환경: 자연환경 요소 중에서 산업 활동의 지역차이발전에 밀접히 관련되는 것은 지형, 기후, 토양이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의 차이우위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산업의 입지와 발달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연환경에 가장 의존적이고 민감한 농업의 경우에는 세 요소가 상호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어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다.

지형은 지역과 장소에 따라 지표면의 기복형태가 평지, 구릉지, 산지, 대지(고원) 등으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러한 지형을 형성(발달)하게 한 지형프로세스(process)가 조륙운동, 화산활동 등의 내적작용이나 하천, 빙하 등의 외적작용이냐에 따라 더욱 복잡하고 상이하게 나타난다. 어쨌든 인간활동은 지형위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떠한 지형이 발달

돼 있느냐는 지역의 산업입지와 발달의 지리적 차이에 밀접히 관련된다. 광활한 평야지형이 하천의 퇴적으로 형성된 지역은 곡물을 비롯한 각종 농작물의 재배에 유리하여 주요 농업(곡창)지역으로 발전한다든지 곡물농업에 불리한 산지나 구릉지는 목축이나 과수원 등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산지나 계곡이라도 풍광이 좋은 장소는 관광휴양지로 개발되기도 한다. 기후는 기온, 강수량, 바람, 일조량, 일조시간, 습도, 증발량 등의 기후요소에 따라 지역의 지리적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기후요소의 차이우위는 특히 날씨에 민감한 농업이나 관광레저산업의 입지의 지리적 차이를 발생시켜 농업과 관광휴양지역 발달에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토양은 지형, 기후뿐 아니라 지질(기반암)과 식생 등과도 밀접히 관련돼 있어 그 종류와 성질(properties)이 지역 간은 물론 지역 내에서도 상이한 지리적 분포를 나타낸다. 농민들은 지역이나 장소의 토양에 적합한 농작물을 재배하려고 하므로 토양의 지리적 차이우위는 지역 농작물과 재배 분포지의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자연환경의 차이우위에 따른 지역차이발전의 실례는 이것에 민감한 농업이나 관광휴양산업의 주요 발달지역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제주도가 오늘날 국제관광휴양지 및 감귤농업특화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4기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독특하고 수려한 화산지형과 한반도에서 사계절 가장 온화한 아열대성 해양기후와 더불어 감귤 밭으로 개간이 용이한 지형발달(해발200m 이하의 해안 임야지) 및 토양(화산회토로서 농암갈색토) 등 자연환경에서의 차이우위가 결정적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Kim, 2004).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김제(전북)와 이천(경기)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 예로부터 쌀 농업이 발달된 것은 논 조성에 유리한 평야지형 발달과 쌀농사에 적합한 토양(식양토) 및 알맞은 기후조건 등의 차별적 이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평야지역이지만 전국 제일의 마늘생산지역으로 알려진 의성(경북)에서도 잘 확인된다. 특히 의성의 동부지역은 전형적인 내륙분지로서 한지형 마늘 재배에 최적의 기후조건(생육시기에 전국 최소의 강우량과 최대의 일

조시간, 적합한 월별 기온과 심한 일교차)과 토양(점토질이 많은 셰일(shale) 풍화토양이면서 PH 5.5~6.0의 약산성토)의 이점으로 품질이 탁월한 의성마늘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이러한 지리적 특산품이 인정돼 ‘의성마늘’은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프레리지역의 밀·옥수수농업, 호주 대찬정분지의 목축, 지중해 연안지역의 수목농업, 프랑스 보르도와 칠레 마이포밸리 등지의 와인용 포도 등이 그 지역의 자연환경의 차이우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기호식품의 생산자와 애호가들은 예로부터 그 식재료를 재배·생산하는 농장의 미시적 자연환경이 맛과 향 등의 품질을 결정하다시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 산지명과 연도를 중요시하고 이를 상품에 표기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와인이나 커피 등은 포도와 커피나무를 재배하는 농장의 미기후(microclimate), 미지형적인 경사와 고도, 토양 등으로 어우러진 특유의 생육환경 즉, 테르와르(terroir)의 차이에서 그 맛과 향이 크게 달라진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서구의 일부 지리학자들은 와인지리학과 커피지리학(geography of wine, geography of coffee)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도 한다.

다. 천연자원: 천연자원은 자연환경에서 획득되는 토지, 물, 광물, 산림, 수산물 등과 같은 비생물 및 생물자원으로서, 이들 자원의 분포의 차이우위는 농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의 지역적 분포와 발달의 지리적 차이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국토가 광활하여 값싼 토지자원이 풍부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평야지역을 주로 외국수출을 겨냥한 상업적 곡물농업과 목축업 용도로 조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비해 토지가 상대적으로 귀한 우리나라의 평야는 식량자급을 위한 집약적 농업이나 생산성이 높은 공업용도(산업단지)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자원도 그것이 풍부한 동남아시아의 평야지역에는 물 의존적인 미작농업이 광범위하게 나타나지만, 건조기후지역에선 오아시스농업이나 유목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광물이나 화석에너지 자원이 다량 매장돼 있는 지역에는 관련 광업이나 공



업이 발달해 있는데 비해 이들 자원이 빈약하여 수입하는 한국 등의 많은 국가에선 대체적 수단으로 수입항구 주변에 관련 산업이 입지한 사례가 많다. 그리고 수산물자원이 풍부한 세계 도처의 바다나 호수의 연안지역에서 어업과 관련 가공 식품업이 발달해 있는 사실 등에서도 잘 확인된다.

라. 인구: 인구요소 중에서는 노동력과 인구밀도의 지역적 차이우위가 지역산업의 차별적 발달과 밀접히 관련된다. 노동력은 다시 학력·숙련도·임금수준의 지역적 차이우위에 따라 지역산업의 입지와 발달에 밀접히 관련돼 차이발전을 발생시킨다. 이는 저학력·비숙련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제3세계의 수많은 대도시에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발달해 있고, 고학력·숙련·고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선진국의 다수의 거대도시지역(metropolitan areas)에는 첨단산업이나 고차서비스산업이 발달해 있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그리고 지역 간 인구밀도의 차이는 산업의 집약도와 종류에 영향을 준다.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이나 일본의 농촌지역은 토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쌀농사 외에 과수와 채소 재배는 물론 가축사육까지도 겸하는 집약적인 복합농업이 발달해 있는 편인데 비해 인구밀도가 훨씬 낮은 북미, 남미, 호주 등의 농촌에서는 단일 작물이나 목축을 매우 조방적으로 영위하는 농업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마. 교통: 교통 조건은 교통수단(육상, 해상, 항공교통)에 따라 지역 간 지리적 차이가 현격히 다르게 나타난다. 더욱이 산업의 종류에 따라 교통수단에 대한 의존도와 교통비부담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교통수단별 지역의 차이우위는 산업 입지와 발달에 결정적 요소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의 유치와 발전 전략으로 필요한 교통수단의 인프라 확충에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육상교통의 지역 간 차이우위는 철도와 도로교통망의 발달정도에 좌우된다. 육상교통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큰 공업과 서비스업은 철도와 도로교통망의 주요 결절(node)로서 육상교통의 차별적 이점이 많은 교통요지 즉, 도시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생산비용과

이윤증대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국내외의 수많은 도시지역에는 그러한 산업이 발달하고, 또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상교통은 개항 항(항구)간의 해상교통인 만큼 항구 발달의 지리적 분포와 지형적 조건, 화물 및 여객처리 시설규모에 따라 그것의 차이우위가 발생한다. 해안의 지형적 조건상 일찍부터 양호한 항구가 발달하였거나 발달하기 쉬운 지역은 해상교통에 의존도가 높은 중화학공업과 수출물류산업의 입지와 발달이 용이하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남동해공업지역에서 포항의 제철, 울산의 정유·자동차·조선, 부산의 물류, 거제의 조선 등의 산업이 발달한 사례에서 잘 확인된다.

항공교통의 지역적 차이우위는 단순히 공항의 유무 보다는 산업의 유치와 발달에 영향을 주는 국제적 수준의 공항에 대한 지역의 접근성의 차이우위로 파악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항이용에 소요되는 시간이 90분 이내인 장소나 지역은 항공교통의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항공교통의 이점이 있는 지역은 항공교통의 의존도가 높은 물류, 관광, 컨벤션, 패션, 쇼핑, 경소단박형 제조업(전자·자동차부품, IT제품 등) 등의 산업이 발달하기 쉽다. 이러한 산업은 인천공항 배후의 수도권권을 비롯하여 도쿄 나리타, 상하이 푸둥, 싱가포르 창이, 네덜란드 스키폴, 파리 드골, 샌프란시스코 공항 등의 배후지역에 잘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과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제주국제공항의 개항으로 본격화 되었다는 점에서도 잘 설명된다.

바. 문화: 문화요소에서는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화적 다양성 등에서의 지역적 차이우위가 지역산업의 차별적 발전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례로 문화유산과 관련해서는 세계도처의 문화관광도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로마, 아테네, 북경, 경주, 교토 등이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이들 도시가 각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훌륭한 문화유적과 유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문화 준중에 대한 지역의 차이우위는 오늘날 세계적인 명품 생산지역을 발생시키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적인 구두산업

도시인 이탈리아의 볼로냐와 시계산업의 메카인 스위스 제네바는 각각 오랜 역사 속에서 지역에 뿌리내려진 구두와 시계공방의 장인을 존중하는 전통문화가 계승·발전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의 차이우위는 예술, 디자인, 첨단기술 등의 창조산업 발달과 밀접히 관련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창조산업이 발달한 창조도시들(creative cities)은 다양한 문화적 시설과 활동이 제공되고, 또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해주는 관용(tolerance)적인 도시를 선호하는 창조적 계급 또는 인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돼 있어 그들에 의해 창조적인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한다(Florida, 2005; Landry, 2008).

사. 경관: 지역의 경관 요소의 차이우위도 지역산업의 차별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관은 시각을 통해 지각되는 풍경이나 경치 또는 그 특징적 모습으로서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을 포함한다. 경관은 이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들(산, 농경지, 식생, 바다, 건축물, 도로 등)의 지리적 다양성이 어우러져 지역이나 장소에 따라 현저히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지역의 자연경관이나 문화경관에서의 차이우위는 그것이 지닌 심미적 가치, 정서적 가치, 상징적 의미 등으로 훌륭한 관광 및 휴양 자원이 될 뿐 아니라 첨단산업의 입지요인이 되기도 한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관광휴양도시로의 발달이 용이하다. 제주도가 오늘날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만의 고유하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라산, 성산일출봉 등의 화산과 만장굴 등의 수많은 용암동굴을 비롯하여, 기생화산(산굼부리 등), 기암(대포주상절리, 용두암 등), 폭포(정방폭포 등), 계곡(안덕계곡 등), 습지(물영아리 등), 해안(용머리, 섭지코지 등), 해수욕장(협재, 함덕 등), 섬(우도 등) 등의 다양하고 빼어난 지형경관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Jung, 2004). 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펼쳐지는 옥빛의 바다경관과 아열대성 식생 및 돌담으로 둘러싼 완경사지 밭과 감귤 농장 등의 이국적인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제주도의 이와 같은 경관의 차이우위는 국제관광지로 발전하는데 충분한 잠재력이 될 수 있다. 과거 중앙정부는 이 점에 주목

하고 제주도를 국제적 관광지로의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한 것이다. 그리고 하와이가 세계적인 관광휴양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와이키키 등 수많은 멋진 해변, 킬라우에아 활화산이 포함된 화산국립공원, 연중 따뜻한 아열대 기후와 식생 등과 같은 천혜의 자연경관자원이 원동력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금강산 관광특구 개발도 이 일대의 빼어난 자연경관 때문이다(Lee, 2000).

이에 비해 파리는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노트르담 대성당 등과 같은 수많은 기념비적인 건축물과 파리의 독특한 거리풍경 등의 훌륭한 문화경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첨단산업도시 소피아 앙티 폴리스는 고급 전문인력이 선호하는 자연 및 문화경관 자원이 양호한 곳의 인근에 친환경적인 테크노폴리스를 건설한 것이 발전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즉, 이 도시는 지중해의 파란 바다, 빼어난 해변 경관, 온화한 기후 등으로 휴양 문화도시로 발달한 칸느와 니스에서 20여분의 근거리에 입지하고 있어 개발 초기부터 고급인력 및 첨단산업의 유치가 비교적 용이하였다는 것이다.

## 2) 주체들의 상보적 역할과 지역차이발전

### (1) 정부

지리적 요소의 차이우위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차별적 산업발전은 지역주민이 그들의 선형적 지식과 시행착오적 경험에 의해 시도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부가 지역발전 잠재력 조사 분석과 계획 수립을 토대로 산업발전정책을 추진한 경우도 있다. 후자는 중앙정부의 국가 산업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기도 하지만 지방정부가 지역의 지리적 요소의 차이우위를 재발견하고 주도적으로 산업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기도 한다.

지역차이발전이 지역주민,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 어느 주체가 주도하더라도 중앙 및 지방정부는 그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각의 상보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 또는 지방정부가 선도하였다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관련 인프라 공급과 생산시설 기반확대 등에 대한 투자와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역산업 발전계획은 국가의 산업정책방향을 우선시 하는 것이어서 비록 지역의 차이우위에 기반하고 있더라도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체성 있는 지역발전과는 유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역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하는 상보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오늘날 제주도가 국제적 관광휴양지 및 감귤생산 지역으로 성공적인 발전을 이룩한 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보적 역할이 적절히 수행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제주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농림어업지역이었다. 그러던 제주도가 오늘날의 산업지역으로 변화·발전하게 된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리적 요소 중에서 위치, 자연환경, 경관 요소에서의 차이우위 가치에 주목한 중앙정부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제주도종합개발 10개년 계획(1972~1981),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1973~1982),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85~1991), 제1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

(1985~1991), 제주도개발특별법(1991년 제정),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200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2002~20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년) 등과 같은 관련 제도와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였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제주도 지역개발 정책은 1991년을 고비로 중대한 전환이 나타났다.

1980년대 말 국민의 직접선거로 탄생한 6공화국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 사회는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무렵 중앙정부가 예전의 권위주의 정부처럼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개발특별법’(1991년 제정,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변경)을 제정하려하자 제주도민들은 그들이 주체가 되는 개발계획을 요구하며 거센 반대운동을 전개한다. 당시 제주도 지방정부도 이러한 지역분위기에 동승하게 돼 결국 이 법은 제1조 목적이 “제주도 일원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에서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도민복지 향

Table 1. Changes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Jeju Island. 제주도 지역개발정책 변화

연도	계획 명	주요 전략	목표	계획기간
1971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제주도를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	1972~1981
1972	제주도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사회간접자본 확충, 관광중심 지역개발	국제관광지로 조성	1972~1981
1973	제주도관광 종합개발 계획	주요 관광지 거점개발, 관광기반시설 확충, 수산·감귤 등 관광관련 산업 육성	국제수준의 관광지 조성	1973~1982
1985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3개단지 13개 지구의 성장거점에 의한 관광 개발	국민관광 기반 국제관광지 조성	1985~1991
1985	제1차 제주도종합개발 계획	사회간접시설 확충, 균형적인 지역개발	관광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균형발전	1985~1991
1994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 계획	관광과 농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룬 개발	관광산업과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을 동시 개발	1994~2001
2003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투자환경 조성</li> <li>• 내·외국인 관광유인 시책강화</li> <li>• (관광·휴양 분야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li> <li>• 제주도민 소득향상 및 환경보전 대책</li> </ul>	사람·상품·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이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소득·복지 향상	2002~2011

상에 기여하기 위한...”으로 수정되었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보전과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진흥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정·제정되었다(Kwon, 2004).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제주도 지방정부는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제주도의 지리적 요소의 차이우위와 주민의 개발욕구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여 관광산업과 함께 농업(특히 감귤산업) 발전에도 목표를 두었다(표 1).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도 발전목표에 제주도민의 소득과 복지향상을 포함·명시하고, 발전전략의 하나인 제주도민의 소득향상 및 자연환경보존대책에서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주도 전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강화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1990년대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해 관광산업과 더불어 자연환경에 조화된 감귤농업도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상보적 산업정책을 펼친 것이 오늘의 제주도로 발전하는데 일조하였다는 것이다.

## (2) 기업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체이지만 지역차이발전에서 지역산업의 차별적 발전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려면 관련 기업의 창업과 투자유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기업은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여 지역의 발전 또는 번영을 촉진하기도 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민의 소득향상 또는 번영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차이발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는 관련 산업의 창업과 외부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각종 지원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업들도 이윤추구에만 몰두하지 않고 지역의 차별적 산업 발달을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면서 가능한 한 지역주민을 많이 고용하고, 지역의 지리적 요소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협조하는 상보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로 제주국제공항(1982년 시설확장), 제주항(1977년 현대식 여객터미널 완공), 1,100도로 개설(1968~1973), 제주 제2우회

도로(중산간도로) 개설(1984~1992), 제주 제1우회도로(해안일주도로) 확장(1990~2002) 등의 교통인프라가 구축되고, 또한 정부(한국관광공사)에 의해 중문 관광단지(1978~2001)가 1978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민간기업의 투자가 잇따랐다. 민간 기업이 건립한 주요 관광시설로는 제주KAL호텔(1974년 개관), 하얏트리젠시 제주(1985), 퍼시픽랜드(중문 머린파크)(1986), 한림공원(1987), 제주민속촌(1987), 여미지 식물원(1989), 제주신라호텔(1990), 제주풍림리조트(1998), 롯데호텔제주(2000), 신라 및 롯데호텔 카지노, 롯데 쇼핑센터, 테디베어 박물관(2001), 한화 리조트 제주(2003),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2003), 소리섬박물관(2004), 해비치 컨트리클럽(1999), 해비치 호텔/리조트(2003), 대명리조트 제주(2007), 휘닉스 아일랜드(2008), 민거나말거나 박물관(2010)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민간 기업들의 투자덕분에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빠르게 활성화돼 주요 관광업체들도 크게 증가하였다. 여행업은 1980년 8개소(국외 7개소)에서 2009년 648개소(국외 91개소로), 관광호텔업은 1972년 7개소에서 2009년 51개소로, 콘도미니엄업은 1994년 1개소에서 2009년 37개소로,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판매업은 1992년 10개소에서 2009년 21개소, 관광식당업은 1992년 3개소에서 2009년 35개소로, 골프장은 1980년 1개소에서 2009년 25개소로 각각 급증하였다.

민간기업의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와 창업은 서비스업 중 관광관련 업종의 발달과 일자리 창출로 나타났다. 2010년 현재 제주도의 관광산업과 깊은 연관이 있는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체수는 전체사업체수의 각각 26.1%, 12.6%, 23.5%, 4.4%로서 네 업종이 65.2%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수는 각각 16.4%, 6.7%, 16.3%, 4.4%로서 전체 일자리의 43.9%에 달한다. 이처럼 기업(주로 국내 대기업)이 제주도의 관광산업발전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투자를 한 것이 관광업과 관련업종의 발달을 가져다주었고, 이것이 제주도과 지역주민의 경제생활 영위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관련 기관

지역차이발전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관련 기관으로는 지역내외에 있는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의 산업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산업제협회, 협동조합, 금융기관 등이 있으며, 각각 나름의 상보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 기관들은 지역차이발전에서 추구하는 지역산업 발전 방향에 관한 정책개발 연구, 산업자원 개발, 산업과 기업에 필요한 인력양성, 지식과 정보 제공, 신상품 및 신품종개발, 기술개발과 보급, 비용 절감 공동노력, 금융지원, 홍보와 판촉 등과 같은 상보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제주도의 지역발전 과정에서 잘 확인된다.

제주도가 오늘날 국제적 관광휴양지 및 감귤농업 특화 지역으로 발전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관련 기관들의 상보적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한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중문골프클럽 개장 등의 제주관광산업의 자원개발과 해외홍보에 크게 관여하였다. 제주도가 출자·설립한 지방공공기관(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1995년)는 청정자연환경에 기반한 생수(삼다수)와 감귤주스의 생산·판매 사업을,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국내외 컨벤션의 유치에서 기획·운영에 관한 전반적 서비스 제공을, 제주관광공사(2008)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홍보·마케팅과 관광상품 및 자원개발을, (주)제주항공(1995)은 제주관광객에게 저비용 항공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각각 제주관광산업과 감귤농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있다.

연구기관으로는 국토연구원이 1980년대의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에 참여하였고, 제주발전연구원(1997)은 1990년대 이후의 제주도의 지역개발계획수립과 관광업을 비롯한 산업발전에 관한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제주도 농업기술원(전 제주도 농촌진흥원)과 농촌진흥청 감귤시험장은 특히 감귤재배기술 보급과 '하례조생' 등의 신품종 개발을 통해 감귤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제주대학교는 농학과(1955년 신설), 원예학과(1967), 지역개발학부(경영·개발행정·관광 전공, 1973), 관광학과(1978), 관광경영학과(1986), 관광개

발학과(1994),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1974),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1981), 통역대학원(1999) 등을 설치하여 제주도의 차별적 산업발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산업발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한라대학(1969년 설립), 제주산업정보대학(1973), 제주관광대학(1991) 그리고 탐라대학교(1996)는 관광경영, 관광외국어, 호텔경영, 호텔조리, 항공서비스, 레저스포츠, 골프 등의 학과를 개설하고 관광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공급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 대표적 산업체 협회인 제주도관광협회(1962년 설립)는 회원업체의 권익증진,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시장조사, 국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동조합 중 제주감귤농협(1960, 2011년 현재 조합원 10,877명)은 영농자재공동구매, 감귤판매 및 유통 공동실시, 농협금융상품 이용혜택, 고품질 감귤생산교육, 우량묘목 육성과 공급 등을 통해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은행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지역기업과 관광관련 업계에 자금지원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제주신용보증재단(2003)의 신용보증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호조건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지역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 (4) 지역주민

지역의 진정한 주인은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다. 이들은 거주하고 있는 고향땅에서 인격적 존재로 자라났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이 남다른 뿐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자연과 문화를 지키려는 의식도 누구보다 강하다. 지역민들의 이러한 애향의식으로 정부나 기업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는 개발사업으로 지역의 자연환경과 경관 등은 훼손되지 않는지 등에 대해 감시하고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이른바 발전과 환경에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들이 세계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지역차이발전론은 지역의 지리적 요소의 차이우위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생업과 산업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지역의 고유한 지리적 요소를 보존하면서 지역주민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과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차이발전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역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며 주민의 권익과 지역의 지리적 요소의 차이우위를 지키기 위한 상보적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요구되는 것이다.

제주도가 오늘날 고유한 지리적 요소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 지역차이발전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은 몇몇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민 권익 강화와 자연환경·경관 보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수반돼 왔기 때문이다. 제주도 지역주민이 지역발전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정부의 '제주도개발특별법'시안이 1990년 8월17일 제주도 일간지 제민일보에 공개되면서 부터이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 주도로 제주도 일원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초점이 맞춰져 개발목적에서 도민의 권익 배제, 개발지구 내의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규제완화와 개발사업촉구, 환경보전에 소극적인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제주도 땅의 주인인 도민의 거센 반발과 함께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반대운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제주도개발특별법반대 범도민회'(약칭 범도민회)가 1991년 초에 결성되고, 범도민회는 정부와 민자당을 상대로 도민과 함께 농성과 시위를 주도하며 법안 수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1년 12월에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은 목적에서 제주도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완화와 개발 촉구에 관련한 여러 조항이 삭제되었고, 아울러 환경보전 및 농업 등 1차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었다.

범도민회가 중심이 된 제주도민의 지역발전문제에 대한 참여와 가시적인 성과는 발전과 환경문제에 관한 제주 시민사회 활동의 활성화로 나타났다. 범도민회는 1991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주도의 주민자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관련 활동을 해오다가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2001년 '제주참여환경연대'로 재탄생 하였고, 제주환경운동연합(1991년 12월 '제주기행모임'에서 시작, 1994년 12월 창립된 '푸른 이어도의 사람들'이 1998년 6월 현 명칭으로 재탄생),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1991년 2월 창립), 꽃자왈 사람들(2005년 1월 창립) 등의 시민단체가 잇따라 출현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한라골프장 등 여러 골프장건설현장 답사 및 환경훼손시정 요구, 제주 습지(물영아리 등)조사 자료집 발간 및 보존요청,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운동, 한라산 5.16도로 확장 반대, 송악산 관광지구 개발 반대,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반대, 꽃자왈 훼손 현장조사와 보존운동, 한라산 리조트·서귀포 관광리조트 등 리조트개발 환경영향평가 검토 및 문제제기, 묘산봉 관광지구 개발반대, 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반대, 비자림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반대운동, 제주롯데관광단지 개발승인 관련 의혹제기, 마라도·가파도 폐기물 조사보도, 한진그룹계열사(주)한국항공의 먹는 샘물 취수허가량 3배 증량신청 반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송전탑건설반대 등과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제주도와 기업 및 정부의 환경 파괴적이고 경관 훼손 개발로부터 제주의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키는데 헌신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유보, 제주 습지 보존사업 추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불가결정,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건설보류, 송악산지구 개발보류, 비자림로 구조 개선사업 취소, 제주롯데관광단지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승인거부 조치, (주)한국항공의 먹는 샘물 취수허가량 증량신청 부결처리 등의 가시적인 성과 외에, 골프장, 리조트 등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과 이후 관리과정에서 환경훼손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이와 같은 시민단체들의 제주지킴이 활동으로 말미암아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의 차이우위가 크게 훼손되지 않아 제주도는 국제관광휴양지 및 감귤농업특화지역으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환경보존 문제는 제주도민의 90%이상 이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향후 지역주민들의 가장 뜨거운 지역현안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또 다른 상보적 역할이 제주도의 관광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제주올레’라는 한 시민단체는 2007년 9월부터 제주도민들에게 골목길이고 오솔길에 지나지 않는 평범한 도보 길이지만, 외지인에게는 제주인의 삶의 흔적, 오늘의 삶의 현장과 모습, 자연의 아름다움 등을 천천히 가까이서 보고 느끼며 제주도의 숨겨진 속살을 만끽할 수 있는 제주올레라는 이색적인 도보순례 관광코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설하여 홍보하고 있다. 제주올레의 활동은 제주 관광의 이미지 개선과 관광자원의 다양성 증대는 물론 관광객 유치(2009년 서귀포시 추정, 올레 탐방객수 25만~30만 명)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이지만 관련 기관(제주관광공사)과 같은 상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4. 결론

세계화 시대에도 세계인이 원하는 세상은 각 지역이나 지방이 정체성을 지니고, 공생관계(symbiotic relationship)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계의 도시 또는 산업지역 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신산업지구, 산업클러스터, 지역혁신체제, 세계도시지역론과 같은 신지역주의 발전론은 세계의 몇몇 성공적인 선진 산업지역에서 유도된 것으로 세계화 또는 세계적 지방화시대에 보편적 지역발전론이 될 수 없다.

세계의 모든 지역이 공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 패러다임도 지역의 경쟁력보다는 공생과 지역 정체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과 함께 새로운 지역발전론의 모색이 필요하다. 세계화된 세계경제 속에서 각 지역이 나름의 산업공간으로서 공생하며 지역정체성을 확보해 갈 수 있는 발전론은 각 지역의 지리적 차이 또는 특성을 기반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적

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세계화 또는 세계적 지방화 시대의 대안적 지역발전론으로서 ‘지역차이발전론’의 개발을 시도했다. 지역차이발전론(regional differential development)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지역 간의 상이한 산업 발전양상이 세계인의 공생과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발전 가치를 내포하고 있음을 중시하고, 각 지역이 지리적 요소(geographical elements) 중에서 차이우위(differential advantage)를 지닌 요소를 기반으로 이에 적합한 산업의 차이(차별적) 발전을 최대치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의 지리적 요소 중에서 위치, 자연환경(지형, 토양, 기후 등), 천연자원, 인구, 교통, 문화, 경관 등과 같은 요소가 현실세계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 요소의 차이우위를 중시한다. 그리고 지역차이발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네 주체 즉, 정부, 기업, 관련 기관, 지역주민이 지역발전의 목표를 공유하고, 각 주체 간의 협력과 갈등 관계 속에서 각각의 상보적 역할(complementary role)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본 연구에서 지역차이발전의 논거로 예시한 제주도는 1970년 이전에는 전형적인 농림수산업지역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제주도의 지리적 요소 중 위치, 자연환경, 경관의 차이우위를 기반으로 관광 및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오늘날 제주도는 국제관광휴양지 및 감귤농업특화지역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성공적 발전은 제주도 지역발전 정책에 참여한 정부(중앙 및 지방), 기업, 관련 기관(산업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교, 산업체협회, 협동조합, 금융기관), 그리고 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이 상호간에 협력과 갈등 속에서 각각의 상보적 역할에 충실하였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국제관광지 조성예에 역점을 둔 제주도개발계획은 지방정부에 의해 제주도민의 개발욕구를 반영한 방향으로 수정·추진되었고, 정부 정책에 호응한 기업들은 관광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다양한 관련 기관들은 제주도가 추구하는 지역산업 발전방향

에 관한 정책개발 연구, 산업자원개발, 기술개발과 보급, 산업인력양성, 지식과 정보제공, 신상품 및 신제품개발, 비용 절감 공동노력, 금융지원, 홍보와 판촉 등과 같은 상보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기업이 주도하는 개발과정에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주민의 권익과 제주도 지리적 요소의 차이우위를 지키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도처에서 상이한 산업지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의 지리적 요소의 차이우위를 바탕으로 지역차이발전이 추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역차이발전론이 세계인의 공생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론의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지역차이발전론은 지역의 지리적 요소의 차이우위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론이므로, 지역의 지리적 차이점을 연구하는 지리학(지역지리학)에 의한 지역의 지리적 요소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와 비교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차이발전의 가능성과 정책방향을 검토하는데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지리학은 종래의 순수 학문적 연구목적 외에 각 지역(지방자치단체)이나 장소의 지역차이발전 또는 정체성 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nkli, R. E., 1992, **Micheal Porter's Competitive Advantage and Business History**, *Business and Economic History*, Second Series, 21, 228-236.
- Boudeville, J. R., 1966, *Problems of Regional Economic Planning*, Edinburgh University Press, Edinburgh.
- Cooke, P., 1992, **Regional Innovation Systems: Competitive Regulation in the New Europe**, *Geoforum*, 23, 365-382.
- Cooke, P., 2001, **From Technopoles to Regional Innovation Systems: The Evolution of Localised Technology Development Policy**, *Canadian Journal of Regional Science*, 14(1), 20-40.
- Cooke, P., 2004,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 Wales: Evolution or Eclipse?**, in Cook, P., Heidenreich, M and Braczyk, H. (eds.), **Regional Innovation Systems** (2nd edition), *Routledge, London*, 214-233.
- Cooke, P. and Morgan, K., 1998, *The Associational Economy: Firms, Regions, and Innov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Crevoisier, D. and Maillat, D., 1991, **Milieu, Industrial Organization and Territorial Production System: Towards a New Theory of Spatial Development**, in Camagni, R.(ed.), *Innovation Networks: Spatial Perspectives*, Belhaven Press, London, 13-34.
- Darwent, D. F., 1969, **Growth Poles and Growth Centres in Regional Planning: A Review**, *Environment and Planning*, 1(1), 5-31.
- Doloreux, D. and Parto, S., 2005, **Regional Innovation Systems: Current Discourse and Unresolved Issue**, *Technology in Society*, 27(2), 133-153.
- Etzkowitz, H. and Leydesdorff, L.(eds.), 1997, *Universities and the Global Knowledge Economy*, **Pinter, London**.
- Florida, R., 2005,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Routledge, New York**.
- Friedmann, F. and Douglass, M., 1975, **Agropolitan Development: Towards A New Strategy for Regional Planning in Asia**, in United Nations Centre For Regional Development, **Growth Pole Strategy and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in Asia**. Nagoya, 333-387.
- Friedmann, F. and Douglass, M., 1978, **Agropolitan Development: Towards A New Strategy for Regional Planning in Asia**, in Lo, F.-C. and Salih, K. (eds), *Growth Pole Strategy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Pergamon, Oxford, 163-192.
- Gore, C., 1984, *Regions in Question : Space, Development Theory and Regional Policy*, Methuen, London( 찰스 고어 지음, 고영종 외 옮김, 1997, 현대지역이



- 론과 정책, 한울아카데미, 서울).
- Haider, D., 1992, Place Wars: New Realities of the 1990s,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6(2), 127-134.
- Jeong, K.-J., 2004, The 7 Chapter Jeju Region: Tourism and Leisure Activities, *Regional Geography of Korea: Jeonlla-Jeju*,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Suwon, 625-641 (in Korean).
- Kim, T., 2004, The 2 Chapter Jeju Region: Nature and Eco-environment, *Regional Geography of Korea: Jeonlla-Jeju*,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Suwon, 537-561 (in Korean).
- Kwon, S. C., 2004, The 9 Chapter Jeju Region: Regional Structure and Regional Policy, *Regional Geography of Korea: Jeonlla-Jeju*,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Suwon, 559-673 (in Korean).
- Landry, C., 2008,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2nd edition)*, Earthscan, London.
- Lee, D.-A., 1993, Flexible Specialization: A New Paradigm for Modern Industrial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28(2), 148-162 (in Korean).
- Lee, J., 1981, **A Study on the Spatial Development Theor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Nak-Dong Geography*, 6, 61-73 (in Korean).
- Lee, J. and Park, C. S., 1984, Spread Effects of Growth Center to the Neighbouring Rural Area: a Case of Kumi Industrial Estate, Korea,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Journal of Social Sciences*, 3, 85-98 (in Korean).
- Lee, J., 2000, **Regional Disparities and Balanced Development Strategy in Nor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5(1), 77-93 (in Korean).
- Lee, J., 2003a, **Global City-Regions Theory and its Implica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8(4), 562-574 (in Korean).
- Lee, J., 2008, Identity and Vision of the Urban Function in Daegu, *Basic Study on the Urban Design of Daegu*, Daegu Metropolitan City, 3-18 (in Korean).
- Lee, Y., 2003b, A Critical Review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Trend and Prospect*, 59, 141-180 (in Korean).
- Leydesdorff, L. and Martin, M., 2006, **Triple Helix indicators of knowledge-based innovation systems**, *Research Policy*, 35(10), 1441-1449.
- Misra, R. P., Sunadram, V. K. and Prakasa Rao, V. L. S., 1974,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in India: a New Strategy*, Viking, Delhi.
- Morgan, K., 1997, **The Learning Region: Institutions, Innovation and Regional Renewal**, *Regional Studies*, 31(5), 491-503.
- Moseley, M. J., 1973, The Impact of Growth Centers in Rural Regions-I: An Analysis of Spatial Patterns in Brittany, *Regional Studies*, 7(1), 57-75.
- Park, S. O., 1994, **High Technology Industrial Development and Formation of New Industrial District: Theory and Empirical Case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29(2), 117-136 (in Korean).
- Park, S. O., 2002, **Industrial in a Networked World: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of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7(2), 111-130 (in Korean).
- Perroux, F., 1955, **Note Sur la Notion de Pole de Croissance**, *Economie Appliquee*, 8, 307-320 (Livingstone, I.(ed.), 1979, *Development Economics and Policy: Selected Readings*, George Allen & Unwin, London).
- Penn, R., 2003, *Lecture 14: Flexible Specialization*, Lancaster University, Lancaster.
- Piore, M. J. and Sabel, C. F., 1984, *The Second Industrial Divide: Possibilities for Prosperity*, Basic Books, New York.
- Porter, M. 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 Free Press, New York.
- Porter, M. E., 2000, Locations, Clusters and Company Strategy, in Clark G. L., Feldman M. P. and Gertler M. S. (eds.),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Geograph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53-274.
- Rugman, A. M. and D'Cruz, J. R., 1993, **The Double Diamond Model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Canada's Experience**,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33(2), 17-39.
- Scott, A. J., 1988, *New Industrial Spaces*, Pion, London.

Scott, A. J., 1999, *Global City-Regions and the New World System*, Department of Policy Studies and Department of Geography, UCLA, Los Angeles.

Scott, A. J.(ed), 2001, *Global City-Regions: Trends, Theory,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Scott, A. J., Agnew, J., Soja, E. W. and Storper, M., 2001, Global City-Regions, in Scott, A. J.(ed.), *Global City-Regions: Trends, Theory,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1-30.

Simmonds, R. and Hack, G.(eds.), 2000, *Global City Regions: Their Emerging Forms*, Spon Press, London.

<http://jeju.grandculture.net>

<http://www.gotjawal.com>

<http://jeju.kfem.or.kr>

<http://jejungo.or.kr>

<http://jejungo.net>

<http://www.jdi.re.kr/>

<http://www.jeju.go.kr/>

<http://www.ijto.or.kr/>

<http://www.hijeju.or.kr/>

<http://www.citrus-cheju.com>

<http://www.jejuair.net/>

<http://www.jejunu.ac.kr/>

<http://www.visitkorea.or.kr/>

<http://www.jpdc.co.kr/>

<http://www.iccjeju.co.kr/>

<http://www.jejuolle.org/>

교신: 이재하,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지리학과(이메일: leejha@knu.ac.kr, 전화: 053-950-5233)

Correspondence: Lee Jaeha,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702-701, Korea (e-mail: leejha@knu.ac.kr, phone: +82-53-950-5233)

최초투고일 2012. 2. 6.

수정일 2012. 2. 24.

최종접수일 2012. 2. 27.